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민선 8기 스포츠 정책은 다를까?

'서브 쓰리'(정규 마라톤경기 거리인 42.195㎞를 3시간 안에 주파한다는 의미)를 꿈꾼다던 젊은 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개인의 꿈만 추구하다 떠났다. 제주도 체육회를 민간에 이양시키는 과정에서도 Fairplay보다 Pairplay(끼리끼리) 흔적만 남겼고 전반적 스포츠 관련 정책들 역시 퇴보된 상태이다. 제주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의 산업적 토대를 탄탄히 해주길 기대했으나 씁쓸함만 남는다.

민선 8기 오영훈 지사 체제의 도정이 시작됐다. 그 역시 전임지사와 비교될 젊은 지사이다. 그러나 그의 스포츠 정책 관련한 공약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함은 아쉽다. 그를 돕는 싱크탱크가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결과인 듯하다. 향후 전반적인 스포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스포츠가 도시와 개인, 사회 발전에 크게 유익함을 인식하면 좋겠다. 스포츠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을 수차 강조해왔다. 스포츠는 흔히 '정치적 우파'라고 한다.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오명이다. 스포츠는 선진의식을 갖게 하고 개인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 스포츠는 환경보호와 지역 홍보에도 중요하기에 제주발전을 위해 스포츠 활용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정확한 방향 수립 후 세부 정책들을 실천 사항들로 추진해야 한다. 오 도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 가능한 스포츠 관련 세부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 성공적인 스포츠 정책을 위해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제주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홍보가 가능한 대형 프로 스포츠 육성이 그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경쟁력있는 소위 브랜드 스포츠 종류를 선정해 지원한다면 제주다움에 순기능을 더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인데 이 단계는 제주도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을 지향하되 전통적이고 부분적인 종목들을 우선 육성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전반적인 스포츠 종목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로써 학교 스포츠와 연계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때 스포츠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신체 문화로 자리매김해 제주다움의 스포츠 문화로써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레저 스포츠 최적지인 제주는 스포츠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인문학적 스토리가 있는 트레킹 코스(올레, 오름, 한라산 등), 스포츠낚시, 캠핑과 인공파도타기, 전천후 스쿠버 다이빙 시설, 안전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싸이클링 코스들은 제주 관광의 품격을 더해 줄 것이다.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브랜드로 육성할 때 스포츠 관련 job과 산업이 활성화되며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스포츠의 순기능을 잘 활용해 제주다움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사설

물가관리 나선 도정, 늦었지만 제대로 하자

도정이 초유의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그간 물가관리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으나 별 반응을 안보이다 뒤늦게 '비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가 물가대책의 '한계'를 분명 지녔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는 도정 자세여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도가 지난주 열린 '경제정책협의회 1차회의' 6대 물가대책 중 주목되는 항목으론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꼽을 수 있다. 제주 소비자물가는 작년부터 상승, 올해엔 14년만에 최고치에다 전국 최고 상승 지역으로 꼽힐만큼 심각하다. 그간 언론이 수 차례 물가대응을 주문해 온 핵심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다. 하반기 인상 예정인 시내버스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 택시요금, 소매분 도시가스요금 등을 연내 동결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많은 소비비중에도 상승폭이 큰 품목의 구조적 문제 해결, 도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업무 이양을 통한 시장감시 강화, 주요 마트·시장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 등도 포함됐다. 일자리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도 더 발굴하고, 전기·수도료 지원 외에 식재료 구입비 신규 지원도 한다. 오 지사가 "지방정부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할 만큼 새롭고 다양한 대책들을 망라했다. 물가대책은 늦었지만 세부 대책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렇지만 물가동향이 계속 악화일로여서 도정 행보가 '효과'로 이어질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도가 이번에 제시한 물가대책들을 많은 도민들과 공유하면서 총력 경주하는게 급선무다.

기초단체 도입, 도의회 지적 새겨 들어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을 공모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작업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첫 발을 내딛기 무섭게 제주도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문제 많아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직선제로 한 가지 방안을 정하고 추진해도 쉽지 않았다. 또 여러 방안을 벌여놓으면 갈등만 조장된다. 도민들은 자기 손으로 시장과 군수를 뽑고 싶어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소득이 없었다. 정부를 설득할 제주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대가로 얻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문제는 추진해 보니 제주 여건과 맞지 않는 등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밤을 샐 우려가 높다. 오 도정은 도의원들의 쓴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열린마당

삼도119센터 구급대 실습을 마치며

조 미 담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2학년

2학년 첫 실습은 소방 실습으로 삼도 119 센터에 배정받았다.

반장님들께서는 구급차 적재 장비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며 교육해 주셨다, 배웠던 장비 중 주들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생각보다 기능이 다양해 놀랐다. 또한, 무게가 있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음에도 다루기가 어려웠는데. 반장님들은 주들것으로 능숙하게 환자를 나르는 모습을 보니 인상 깊었다.

여러 출동을 나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은 두부 출혈 손상 환자였다. 환자는 머리에 심한 출혈로 인해 현장 곳곳에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 처음 그러한 광경을 보니 매우 당황하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 분들이 침착하게 붕대로 응급처치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구급대원 분들이 다시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 줄만 알았던 실습을 마쳐보니 아쉬움이 크고, 구급대원이 되는 길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했음에도 모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알려주신 반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한, 센터장님과 팀장님, 모든 반장님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다음에는 실습생이 아닌 구급대원으로 만나 같이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모습을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교육감 바뀌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같다"

백서 전달 소통 부재 언급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14일 백서 전달을 놓고 김창식 교육위원장이 소통 부재를 언급.

김 위원장은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백서 전달을 알았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안 주나. 의회는 무시해도 되나"라며 "이것을 협치와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백서는 인수위에서 제작, 편찬했다. 오후 5시쯤 전달식을 했는데 하루 종일 출장이라 보지 못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언론에 나왔는데 부교육감도 모르고 있다. 막혀 있는 곳이 있으면 뚫으라"며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다"고 발언. 진선희기자

2주 이상 기침, 혹시 결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가 제주 포함,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인 기침, 가래 등을 보이는 결핵의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목.

이에 동부보건소는 흉부엑스선 검진, 객담 검사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검진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운동을 하고 손 씻기 등 생활 속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 백금탁기자

부 고

강덕찬(봉성리 청년회장) 아버지 **진주 강공 성립(前 봉성리장·향년 69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16일 04시 0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2년 7월 18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2년 7월 19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중앙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 봉성리 선영

부 인 양치화
아 들 강덕찬 며느리 김윤경
강덕홍 윤희수

※ 연락처 : 강덕찬 010-9487-0100
강덕홍 010-9996-0383

자기주식매입 공고

본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유동성이 저하되고 주주가치가 저하되므로 상법 제341조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주주님께서는 자기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에 매입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보통주식 3,350주 금 금760,000,000원
2.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22년 8월 15일로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및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치제고를 통한 유동성확보, 보통주식 3,350주
4.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의 내용 및 산정방법
금전(현금) 1주당 224,200원
5.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금 760,000,000원 이내
6.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공고일로 부터 20일까지
7. 주식대금 지급기간과 그밖의 조건
당 회사의 주주가 자기주식취득공고 및 통지를 받고 20일 내 주식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30일이내 주식양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
8. 당사의 재무상태(2021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 및 자본
당좌자산 금 596,264,439원	유동부채 금 315,025,450원
투자자산 금 10,000,000원	비유동부채 금 0원
유형자산 금 569,501,393원	부채계 금315,025,450원
기타비유동자산 금 0원	자본금 금100,000,000원
	배당가능이익잉여금 금 760,740,382원
자산계 금 1,175,765,832원	**자본계 금 860,740,382원**

2022년 7월 18일
주식회사 제주파워렌트카
제주시 오일장중길 117,1동 2층(도두일동)
사내이사 이동우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고재량(1902. 5. 14생)
•최후주소 : 제주시 서사로 126 (삼도일동 534-11)

상기자는 2000년 10월 2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7월 06일 제주지방법원 2022느단26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26, 107동 601호 (천곡리,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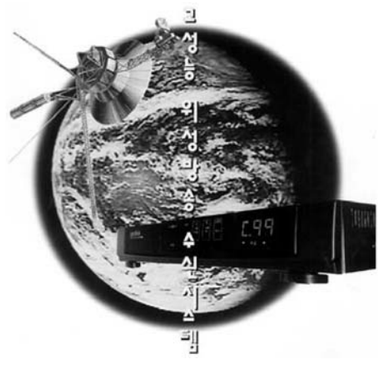
2022년 7월 18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두숙, 전순옥, 강미순, 강진순, 강지훈
강지향, 강지옥, 강민호, 고상혁, 고정화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